

조합원의 작은 희망을 앞장서 대변하겠습니다

발행인 김종기  
편집인 정원상  
주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번지  
Tel. 053-603-3920  
Fax. 053-603-3929 www.gbe.or.kr

# 지명종

→ 현장활동 2~3면

→ 회의활동 4면

→ 교육활동 및 공무원연금 5면

→ 교육연맹 및 공무원노총 6면

→ 칼럼 7면

→ 지부소식 및 종합 8면



## 경북교육노조! 한마음되다!

2015년 권역별 노사 교육  
2,000여 조합원의 뜨거운 응원!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노사관계 인식제고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 확산하기 위한 2015년도 경북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노동교육을 2015. 1. 20(화)부터 1.28(수)까지 경북의 23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북교육청과 체결한 2013년도 단체협약 제5조 4항에 의거 실시한 것으로 지난 해까지는 지역교육지원청 단위로 실시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의 업무경감 등을 위해 이번에는 본청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교육은 단체담당사무관의 2014년도 노사실적보고와 노조관련행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한경대학교 박종암 교수가 공무원노조의 현실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고 마지막 시간에는 김종기 경북교육노조 위원장이 단체협약서 내용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 현안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앞서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활동을 통해 짧은 재임기간임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현 노조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도 노조와 상생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학교현장이 2014년도 연말정산과 2015년도 예산편성에 바쁜 가운데 참석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공무원도 노동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은 반드시 쟁취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직장으로 만드는 데 노조가 앞장서겠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1.20(화)에 실시한 포항지역(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은 경북학생문화회관 대강당에서 531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21(수)은 안동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주, 예천, 봉화)은 경북교육연구원에서 조합원 491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1.23(금)은 구미 금오공대에서 구미지역(구미, 김천, 성주, 칠곡, 군위)조합원 559명이 참석하였다. 이어 1.27(화) 경산지역(경산, 영천, 청도, 고령)은 221여 명이 경산교육지원청 강당에서, 마지막 1.28(수) 문경지역(문경, 상주)은 185여 명의 조합원이 도립상주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강의중에 “노조에 바란다”라는 의견서를 직접 받아 그 자리에서 김종기 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하였으며 답변이 어렵거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추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표창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에서는 2014. 12. 4(목) 경북교육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노조 설립이래 최초로 신설하여 경북교육청과 교육노조간 건전 노사관계 구축 유공자 포상식을 가졌다.

이날 평소 공직자로서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아울러 노조 조합원으로서

노동환경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에 기여한 정순분, 이영욱, 엄재일, 강종현, 전종필, 이은영, 임범수, 김문식, 권순용, 김종섭, 박두익 11명의 조합원이 포상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영예로운 표창을 수여 받았다.



## 「참 좋은 대화」

### 이영우 교육감과 6급 이하 조합원 대화의 시간 가져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에서는 2014. 12. 4(목) 경북교육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영우 교육감과 6급 이하 조합원과의 '참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감과의 대화에는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행정, 시설, 공업, 사서, 전산, 보건, 시설관리, 조리, 사무 등 각 직렬별로 23명이 참석하였다. 이영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경북교육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함께 자리한 김종기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권익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의 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친 학교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그리고 노사 합동으로 현장의 소리 청취회의를 가졌고, 오늘 교육감과 직접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공무원들의 권익개선 사안들은 모두 다 법령과 제도로서 이



루어진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달라"라고 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화시간에는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증원 등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경북교육노조는 이날 제

안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의 검토를 거친후 추진 계획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대화시간에는 본청에서는 김유태 행정지원과장이, 노조측은 박흥기 수석부위원장이 배석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에서는 2014. 12. 4(목) 경북교육청 직원복지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돕기 노사합동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장 담그기 행사에는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해 23개

시·군 지부장, 경북교육청의 이영우 교육감과 본청 국·과장, 23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 경북학교조리사회(회장 전위숙)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경북교육청과 경북교육노조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통한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

## 불우 이웃 돕기 사랑의 김장행사

하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소년소녀 가장 및 다문화 가정의 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경북교육청이 추구하는 명품교육으로 승화 하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난 제9회 경북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하여 얻어진 성금과 경북 학교조리사회의 재능기부 및 농협중앙회 경북교육청출장지점(지점장 최석기)의 후원으로 이루어지

게 되었으며, 이날 참가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00kg을 경북도내 소년소녀 가장 등 2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각각 10kg씩 전달한다.

김종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민간노조와는 달리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함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공무원들만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와 더불어 함께하는 노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4.12.15(월) 오후 두 시부터 경북교육노조 사무실에서 경북교육청과 2014년 4/4분기 노사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첫 번째 안건인 2/4 및 3/4분기 협의회 안건 추진 현황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의 자동 조절되는 안전벨트 장착 및 승하차 보호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필수요원 지정 확대는 현행 비율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발생 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4/4분기 안건인 지역별, 기관별 근무 만기자 사전예고제 도입, 교육행정 현장의 소리 청취 결과 협의는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학교시설물 관리를 위한 대책은 경상북도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사무관 승진제도 개선은 시행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장기적으

2014년 4/4분기

경북교육노조-경북교육청 노사협의회 및 실적보고회

로 검토하기로 협의하였다.

경북교육노조에서는 향후에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와 권익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 노조측에서는 김종기 위원장, 박흥기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신영찬 기획조정국장, 서종철 정책교섭국장이 참석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김영수 총무과장, 김유태 행정지원과장, 김광곤 학교지원과장이 참석하였다.

협의회에 이어 2014년 경북교육노조 실적 보고회를 이영우 교육감 및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결과 보고회 말미에 이영우 교육감은

“노사가 한 마음으로 명품 경북교육 완성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하여,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보니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좋다.”고 하면서, “다가오는 2015년에도 더욱 좋은 의견을 주고받는 노사협의회를 이어가자.”고 하였으며, 노조측 김종기 위원장은 “귀를 열면 듣기는 쉬우나 마음을 열고 듣기는 어렵고, 눈을 뜨고 보는 것은 쉬우나 편견을 버리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2015년에는 집행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2015년 1/4분기

경북교육노조-경북교육청 노사협의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5. 2. 12(목) 오후 두 시부터 경북교육노조 회의실에서 경북교육청과 2015년 1/4분기 노사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감사관 소관 1개 안건, 기획조정관 소관 2개 안건, 총무과 소관 5개 안건, 학교지원과 소관 1개 안건으로 총 9개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협의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청측의 교섭대표인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년도 노사협의회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듯이 올해도 노사 상호간의 의사 소통의 창구로서 조합원의 권익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노조측 김종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귀를 열면 듣기는 쉬우나 마음을 열고 듣기는 어렵고, 눈을 뜨고 보는 것은 쉬우나 편견을 버리고 보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집행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날 협의 사안인 △감사제도개선 △인사발령 통지서 서식 변경 △학교 통학용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 △일반

직 교육행정 연구회 구성 및 운영 △학생 대상 안전 교육의 실효성 확보 건은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 관련 조례 및 운영지침 개정은 2/4분기에 재 논의하기로 하였고,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 △분교장 관리 근무자 인센티브 부여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통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교육청 교육상에 일반직 포함 건은 ‘2015년부터 학교 수업력 향상과 직접 관련 없는 행사 폐지’라는 기본 방침에 해당되어 사업 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경북교육노조에서는 향후에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지와 권익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 노조측에서는 김종기 위원장, 박흥기 수석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조원정 안동지부장, 권기일 예천지부장이 참석하였고, 집행부에서는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정재원 감사관, 김동구 기획조정관, 김광곤 총무과장, 윤영태 학교지원과장이 참석하였으며, 김유태 행정지원과장이 배석하였다.



- 4월 3일 본청지부장 선거
- 4월 4일 노조임원 노동교육
- 4월 8일 공무원노총 제8차 전국임시대의원대회
- 4월 10~11일 제5회 영남지역교육청노조 임원 워크숍
- 4월 14일 청도지부장 선거
- 4월 15~16일 경북교육노조 제5대 출범식(취임식) 노사 상생유공자 표창 노사상생 공동 선언 노사합동 워크숍





## 제28차 임시대의원대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11. 5(수) 오전 11시 경주 KT 수련원에서 24개 시·군지부 대의원 약 1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라는 모토 아래 공무원노동조합이 전력을 다해 투쟁을 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위노조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자”고 하면서,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참석해준 대의원들께 감사하고 오늘의 이 어려움이 공무원노조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자부심과, 조합원 50명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

다.”고 하였다. 이어서 2014년 주요활동사항과 2014년도 상반기 회계감사결과, 2013~2014 경북교육노조의 주요성과 및 연금기금 모금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경북교육노조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2014년도 제1차 추경(안)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 활동으로 인한 회의 및 집회참석에 필요한 예산이 경정 되었으며, 2015년도 경북교육노조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4년 예산을 준용하였으며, 제 5대 임원 선거 및 출범식 예산이 추가 편성된 안이 원안 통과 되었다.



## 제57차 정기상임위원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15. 1. 23(금) 10시부터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57차 정기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2014년도 세입·세출 및 특별기금 결산(안) △선거관리위원장선출 △제5대 임원 선거 일정 △제29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등 4개 의안을 심의 의결 하였다. 2014년도 세입·세출 및 특별기금 결산(안) 승인과 제5대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출을 위한 제29차 정기대의원대회는 경상북도교육청 별관2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5대 임원 선거 일정을 결정하였으며,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본청지부 박귀훈 조합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제4기 집행부 출범 이후 2회에 걸친 행정실 발전방안 토론회, 노사합동 교육행정현장의 소리 청취, 6급이하 교육감

과의 대화, 학교 방문, 소수직렬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몇 가지를 성취 했지만 아직도 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한 일들이 막막하다.”고 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회의에 이후 2015. 1. 1 취임 후 처음으로 상임위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가진 경상북도교육청 김태원 행정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조와 집행부 모두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공통의 목적이 있다면서 항상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합리적인 노조 활동과 원칙을 지키는 데는 강한 노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합리적인 노조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회의는 전체상임위원 31명 중 26명이 참석하였다.

## 제29차 정기대의원대회 -제5대 임원선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2015. 3. 21(토) 오전 10시 경북교육청 별관2대회의실에서 24개 시·군지부 대의원 약 1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29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종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2014년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라는 모토 아래 우리 경북교육노조가 전력을 다해 투쟁을 하면서도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단위노조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한 한 해였다.”고 하면서,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 동지 여러분과 조합원들의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

하였다.”면서 “학기 초에 모두가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동지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주요활동 보고와 2014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2014년도 경북교육노조 세입·세출 및 특별회계(공무원연금개악저지 투쟁기금) 결산(안)과 제5대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출(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이어진 제5대 임원 선거에서, 부위원장으로 최정연, 이명구, 김태균, 장용복 후보(득표순)가 회계감사위원장으로 김중웅 후보가 선출되었다.





## 328 총력투쟁 결의대회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조합원 약 140여명은 2015.3.28(토)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328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경북교육노조 참석자들은 이른 새벽부터 각 시군별로 출발하여 13시경 대회장인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 모두 도착하였다. 지난 11월 1일 100만 공무원 총결의 대회 때처럼 이날 참석자들이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은 물론 주변 도로가

지 가득 메워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날 전국에서 약 80,000여명의 공무원들이 여의도에 집결하였다. 본대회에 이어 공노총 소속 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주변을 거리 행진하며, “공적연금 강화!” 구호를 외쳤다. 경북교육노조는 공적연금을 강화하여야 할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금법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투본과 함께 경북교육노조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 새정연 정당대회 연금개악 저지 요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 위원장 김종기)은 1월 25일 일요일 대구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당대회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구·경북연합(경북교육노조, 경북도청노조, 대구시노조, 대구교육노조, 대구북구청노조, 구미시청노조)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협의회 등 50여 단체와 함께 참석하여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요구하였다. 이 날 집회에 참석한 제단체 조합원 약 100여 명은 낮 열두 시부터 두 시까

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자 5명과 국회의원들에게 “새누리당이 말아먹은 공적연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상향평준화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는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연금 기금 33조 원 원금이라도 갚아라!”고 촉구하였다.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교육청노조 주관 제2차 노조간부교육 참석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김종기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10명은 10월 6일(월)~8일(수) 3일간 제천 이ես리조트에서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제2차 간부 및 조합원교육」에 참석하였다. 이번 2차 교육에는 서울교육청공무원노조, 부산교육청공무원노조,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 등 6개 노조에서 70여 명이 참여해 노조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교육 첫날 격려차 방문한 정태면 연수원장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고, 이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역할

이 중요한 만큼 노조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노조제도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교육을 연수원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생들은 3일간의 교육일정동안 △자기관리 및 인간관계기법 △외국 공무원노동조합 제도와 실태 △공무원연금 현황과 발전방안 △공무원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노조간부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키우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유한양행노조 박광진 위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현장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펼쳐 조합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 마지막 날에는 참석한 단위노조 위원장들과 노조 소개 및 발전방향과 함께 현재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 간담회 실시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11월 18일(화) 오전 11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교육부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 경과사항 및 추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정원 배정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교육청노조는 이에 대한 교육부의 지속적 관심 및 실질적 해결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에 대해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과 오국현 사무총장을 비롯해 세종 민병태 위원장, 울산 이정현 사무총장, 경북 정원상 사무총장, 경남 진영민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에서는 심민철 지방교육자치과장, 이동주 지방공무원노조 담당사무관이 함께 했다.

경북교육노조는 앞으로도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지방공무원의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교육청 연맹 제25차 임시 대의원대회 -제7대 임원선거-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1.10(토) 오후 두 시,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된 제25차 교육청연맹 임시 대의원대회

및 제7대 임원선거에 참여하였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상급단체 현안 사업인 행정실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철회, 학교운영비 지방공무원 보전수당 지급 요구, 방과후학교 업무수당 지급 요구 등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 및 심도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경북교육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위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하였다.

대의원대회에 이어 실시된 제7대 임원

선거에서는 제6대 교육연맹 위원장이었던 오재형 후보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수석부위원장은 이정현(울산교육노조 사무총장), 부위원장은 이재복(경북교육노조 총무재정국장), 김신욱(경남교육노조 사무처장), 변종례(충남교육노조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김완근(제주교육노조 위원장)이 당선되었다.

## 황우여 교육부장관(사회 부총리) 면담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5. 1. 19(월)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루어진 공노총 임원들과 함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면담에 참석하였다.

이날은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업무개선,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반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류영록 위원장은 “38만 교원과 달리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은 7만 명에 불과한데, 교육부는 이런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매우 소홀하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은 “교육현

장 개선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이라고 강조하고 교육부에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노력이 전무하다며 서운함을 나타냈다. 특히 창구도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과에서 사무관 1명이 공무원 단체를 전담하고 있는 점을 들어 노조와의 소통을 정례화하여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황우여 장관은 “학교 현장의 근로 사항은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안전해야 한다”며 “노동법을 뛰어 넘어서 모범적인 근로 현장으로 만드는데 힘쓰고 지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제를 법내제1노조인 공노총과 함께 소통을 통해 해결해보자”고 화답했다.



특히 황우여 장관은 교육청노조와 노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장관면담을 년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앞으로 소통의 장을 넓혀가기로 했다.

이후 지방교육지원국을 만난 자리에서 승용배 국장은 행정실 법제화와 관련해 교육청노조, 유은혜 의원실, 교총이 참여하는 3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병설유치원 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수당 신설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근무여건 개

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때는 상시 만나서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류영록 위원장, 안영근 사무총장, 이관우 부위원장, 진영민 부위원장,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편경천 부산교육노조 위원장, 정기웅 전북교육노조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북교육노조에서는 정원상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박태주**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공무원노총 정책자문위원장)



## 투쟁하라,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겨라

공무원 연금개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 하루하루 신문소식을 따라가기도 버겁다. 밖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렇다.

지난 해 2월 25일, 박근혜대통령이 공무원 연금개혁을 발표한 이래 일 년이 넘어 지났다.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정부의 초기 의도는 많이 훼손(?)됐다. 정부는 당초부터 논의 테이블에 공무원노조를 앉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도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전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을 빼버렸다.

연금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무원노조법도 짐짓 모른 체했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논의한다고 약속한 단체협약도 무심한척 외면했다. 여당을 앞장세우고 정부는 뒤로 숨고자 했다. 그러면서도 '연내처리'란 말은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다.

그렇다고 일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공무원에게는 노조가 있었다. 그 노조들이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하고 투쟁에 나섰다. 실탄(투쟁자금)도 마련했다. 공무원노총으로서는 서울에서 모이는 집회만도 세 차례나 했다. 2014년 9월 27일과 11월 1일, 그리고 2015년 3월 28일이 그것이다. 민주노총 집회보다 더 많이 모였다. 정권퇴진투쟁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겁없는'

말들이 난무했다. 정치활동은 물론 단체행동조차 금지된 공무원노조로서는 불법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공무원들로서는 이번만큼 노조의 필요성과 역할을 몸으로 절감해 본 건 처음이었을 것이다. 프리만과 메도프(Freeman & Medoff)라는 하버드대 교수들 말마따나 노동조합은 집단적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기구라는 걸 실감나게 보여줬다. 공무원도 노동자였다. 결국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고 국회에서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노조는 합법과 법외를 가리지 않고 대화기구에 포함됐고 연내처리는 불발됐다.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모여 투쟁한 덕이었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내세우며 쓴 또다른 전략(?)은 공무원과 국민들 사이에 편싸움을 붙이는 것이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사정이 좋은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은근슬쩍 둘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코푼돈'을 제멋대로 빼내 썼다고는 고백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용돈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숨겼다. 복지의 취지는 간데없고 재정적인 관점만 부각되고 있었다. 어린애들한테 장수(長壽)가 재앙이라고 가르치는 나라다운 발상이었다. 공무원노조는 공적 연금강화로 맞섰

다. OECD 꼴찌인 사회복지수준을 가진 나라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은 여전히 사회개혁 의제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공적연금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목이었다. 공무원노조는 2007년 국민연금이 삭감될 때 침묵했음을 사과했고, 2009년 신규공무원에게 '개혁'의 덤터기를 씌운 것을 참회했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공적연금강화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버텼다. 급기야 3월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발족했다.

대타협기구는 시간에 묶인 협의기구라는 점에서 미완의 기구였다. 시한이 다되도록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는 건 예상된 바였다. 5월 2일 국회특위의 종료로 앞두고 공무원연금투쟁은 마지막 갈딱고개를 넘듯 힘든 여정을 이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논의는 어디로 흘러갔는지 끝내 오리무중이다. 공적연금 강화라는 주장이 공무원연금을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가 아니었다면 이 부분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연금투쟁을 지켜보면 서나의 관점 포인트는 공무원노조가 이를 계기로 얼마만큼이나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공무원노

조의 힘은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오고 그것이 공무원 노동운동의 성패를 가름한다.

근래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점차 공무원노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소식은 그래서 반갑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이 40%를 밑도는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의식이 미흡하다거나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선 5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2015.3.31. 발표). 국민과 공무원노조 사이에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다.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행정개혁에 나서고 시민들과 함께 사회개혁에 나서는 이유도 국민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가 답이다"는 것은 공무원노조에겐 운명같은 금언이다.

노동운동 역시 가치와 철학의 바탕 위에서 쌓아가는 건축물이라면 그 바탕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즉 공공서비스 노조주의(public service unionism)라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공무원연금도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리라는 국민들의 확신에 의존한다.

### 프로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노동경제학 석사  
영국 Warwick 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

### 주요 경력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연맹)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 노동개혁 TF팀장(비서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대자동차 노사자문위원회 대표  
한국GM 노사자문 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 주요 논문 및 저서

- 「공무원 노사관계: 단체교섭구조를 중심으로」(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6)
- 「현대자동차 노사관계 진단과 대안」(공저, 연구책임자, 한국노동교육원, 2006)
- 「현대자동차의 세계화전략과 노동조합의 저항적 실리주의」, 『산업노동연구』, 제15권 1호(2009)
- 「현대자동차의 장시간 노동체제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시사점」, 『동향과 전망』, 제76권(2009, 여름호)
-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를 통해 본 노동운동 재생전략의 과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2010)
- 「"주간연속 2교대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산업노동연구』(2009)
- 「장시간 노동이 일과 삶의 갈등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2011)





### 지부 소식

#### 경산지부(박영락 지부장)

2014 경산지부 총회 및 지부장 이취임식  
 - 일시 : 2015. 2. 25(수)12시  
 - 장소 : 경산중학교 체육관



#### 군위지부(김용수 지부장)

제5대 군위지부 이취임식  
 - 일시 : 2015. 3. 25(수) 10시 30분  
 - 장소 : 군위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 동행(同行)

## 행복에 대한 단상

- 봄이 지천이다 -

**아름다운** 꽃 소식이 있는가 하면, 기다리지 않는 우울한 소식도 있다. 국가 경쟁력 26위, 경제규모 세계 13위, 학업성취도(PISA, 2012) 수학 1위로 세계적 한국이라는 지표가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가 삶의 질하고는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다. 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대부분이 80%이나 한국은 60% 만이 만족하고 있고 100명 중 50명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유니세프

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도 수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 노인소득도 OECD 최악이고 연금도 최하위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반영인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143개국 중 118위로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요즘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대두되는 가장 강력한 화두이다. 학교폭력이나 노인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는 지금, 학생은 학교에서 노인은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결과를 말해준다. 행복학의 권위자인 애드 디너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에서 지속적으로 완벽한 행복은 실현자체가 불가능 하니 “조금 불행한 행복을 원하라”고 조언한다. 한국의 사회가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위정자의 비도덕성 및 불통 등이 우리사회를 더욱 깊고 오래도록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위정자를 포함 우리 모두는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 순한 양처럼 왔다가 날랜 사자처럼 간다는 봄이 끝나기 전에 행운(네 잎 클로버)을 찾으려고 행복(세 잎 클로버)을 짓밟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다.

##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습니다.

‘자명종’에서는 조합원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글, 노동조합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글을 03ina@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한\_ 수시접수
- 분량\_ 200자 원고지 10매 이하 또는 A4 2장 자유 분량
- 장르\_ 시, 수필, 칼럼, 논평 등 제한 없음

※ 이름, 연락처, 소속기관과 필자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시오.